
제2차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산시의회

목 차

1. 목 적	2
2. 특별위원회 구성	3
3. 활동개요	4
4. 활동방향	5
5. 추진실적	6
6. 추진성과	9
7. 건의안	12
○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	13
8. 안산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안)	17
9. 사진으로 본 특위 활동	18
10. 언론보도 자료	20

제2차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1. 목 적

- 안산권역에는 「대도시권광역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임.
-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단절 및 소음·환경피해 등이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신안산선 노선확정 고시(2009년 하반기 예정)를 위한 국토부의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수행중으로 우리시로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 이에 시의회차원에서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함.

2.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동규



간 사
김판동



위 원
강기태



위 원
김명연



위 원
문인수



위 원
박선희



위 원
성준모



위 원
이민근



위 원
정승현

【 2009년도 】

- 구성일시 : 2009년 3월 5일(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 구성위원 : 9인
 - 위원장 : 김동규
 - 간 사 : 김판동
 - 위 원 : 강기태, 김명연, 문인수, 박선희, 성준모, 이민근, 정승현
- 활동기간 : 2009. 03. 05 ~ 2009. 12. 31
- 활동내용
 -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등의 활동 전개

3. 활동개요

1)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 2014년
- 사업구간 : 부천 소사 ~ 안산 원시간 23.4km 복선전철
 - ※ 안산시 구간 : 10.5km (선부, 화랑, 원곡, 원시)
- 사 업 비 : 1조 3,259억원

2)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95년 ~ 2015년
- 사업구간 : 수원 ~ 인천(52.8km) (안산시 건설구간 : 4.94km)

구 분		구 간 (수원기점)	연 장	비 고
안 산 시 구 간	본 선	14km,600~16km,400	L=1,800m	본오APT
	정거장	16km,400~17km,080	L= 680m	사리역
	본 선	17km,080~19km,540	L=2,460m	한대앞역
계			L=4,9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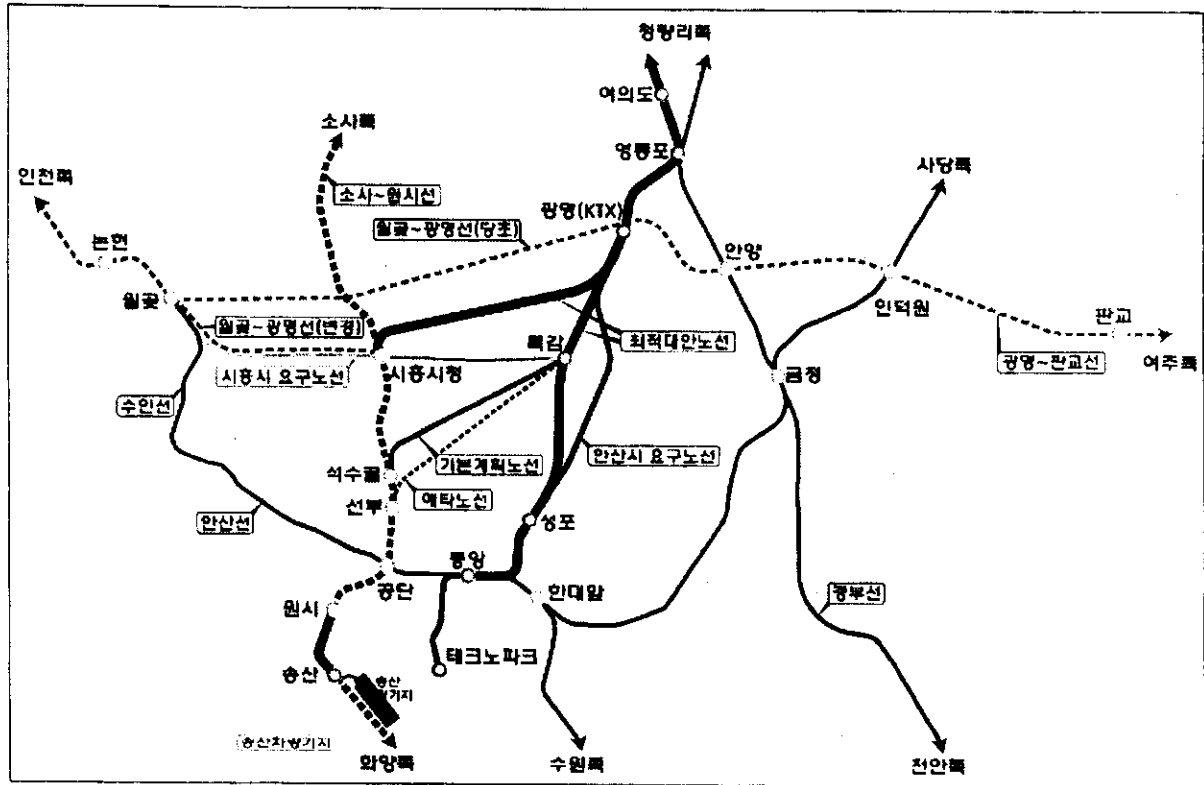
- 사 업 비 : 1조 8,264억원(안산시 분담금 122억원)
- 반지하화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2.72km (본오APT~한대앞역, 사리역사 680m 포함)
 - 추가사업비 : 도상추정금액 228억원 ('09. 1월 기준)
 - 반지하심도 2.64m, 지상부 조성 530m

3)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21년
- 사업내용 : 복선전철 40.4km (청량리 ~ 여의도 ~ 광명역 ~ 안산)
 - 1단계 : 안산 ~ 광명 ~ 여의도 (21.5km) 2017년 개통
 - 2단계 : 여의도 ~ 청량리 (18.9km) 2021년 개통

○ 사 업 비 : 5조 1,819억원

○ 진행상황 :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 용역 결과 잠정 발표 (국토부)



<최적 대안 노선안> ('09년 지역갈등해소 용역 기준)

※ 여의도 ~ 중앙역(송산역) L= 36.71km, 3조4,800억원

(광명 ~ 시흥시청 8.96km 포함)

4. 활동 방향

□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강구

- 광역전철대책 관련 시 업무추진 확인(업무보고 청취)
- 지역정치인 및 관계전문가와 토론회 및 의견청취를 통한 대책 강구
-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안산시의회 의견 전달 및 인식

5. 추진실적

1) 광역전철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제1차 광역전철특위)

- 일 시 : 2009. 04. 03(금)
- 장 소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 참 석 자 : 특위위원9, 전문위원
- 내 용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2)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청취 및 대책 협의 (제2차 광역전철특위)

- 일 시 : 2009. 04. 16(목)
- 장 소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 참 석 자
 - 시의회 : 특위위원 9인, 전문위원
 - 집행부 : 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전문위원 2인
- 내 용 : 광역전철 3개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청취 및 토의
 - 수인선 추진과 관련하여 수원, 인천 구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수인선 협약 체결은 예정대로 조속히 마무리 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의견을 제시해야함.
 - 광역전철특위의 활동 범위를 단순히 현재 추진 중인 수인선, 신안선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된 안산선에 대해서도 개선·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안산선의 안산 유치로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들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신안선의 안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기 바람. 또한 국토해양부와 협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특위에도 정확히 전달하기 바람.

○ 회의결과

- 신안산선 : 국토해양부의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장하는 최적 노선이 신안산선의 노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고, 대책을 강구
- 수 인 선 : 반지하화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고 지상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 체결 시 최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 소사 ~ 원시선 : 석수골 역사 주변의 개발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3) 광역전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청취 및 대책 협의

(제3차 광역전철특위)

○ 일 시 : 2009. 11. 13(금)

○ 장 소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 참 석 자

- 시의회 : 특위위원 9인, 전문위원
- 집행부 : 건설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전문위원 2인

○ 내 용 : 광역전철 3개 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청취 및 토의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선 협약(안)의 내용 중 부담금이 228억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불명확하며 향후 부담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요구됨. 또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우리시의 요구사항 및 공사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11월 2일 국토해양부의 잠정적 확정노선안이 발표되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지만, 실제 기본계획 고시에 현재의 노선이 누락되거나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누락될 경우 우리시의 부담이 더

육 증가하게 되므로 추가역사 설치 및 노선 연장은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함. 아울러, 무리한 요구로 현재의 잠정 확정노선의 변경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중요함.

- 현재 광역특위는 신안산선과 수인선 등에 국한되어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의 안산선의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아울러, 수인선의 경우 우리시 구간외에 인천, 수원구간의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하고 파악하여 우리시 구간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의결과

- 신안산선 : 국토해양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을 통하여 최적노선을 여의도~안산 중앙 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씨티 노선으로 발표하였으나 여의도~안산 중앙 노선에는 당초 우리시가 요구했던 성포-목감구간에 정거장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 인 선 : 반지하화에 대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서를 통해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인선 사업추진에 있어 안산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설계변경 등 당초 사업 일정대로 추진 바람.
- 소사 ~ 원시선 :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4)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 채택

(제4차 광역전철특위)

- 일 시 : 2009. 11. 20.(금)
- 장 소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 참 석 자

- 특위위원 9인, 전문위원

○ 내 용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에 따른 최적노선에 대한 안산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위에서 건의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 채택

5) 광역전철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

(제5차 광역전철특위)

○ 일 시 : 2009. 12. 21(월)

○ 장 소 :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 참 석 자

- 특위위원 9인, 전문위원

○ 내 용

-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종결합의

6. 추진성과

【 배 경 】

- 현재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일환인 국책사업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책사업 계획이 추진됨에 있어 지자체의 상황이 반영은 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방향이 주도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실제 건설 추진 시 지자체와의 갈등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여
-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안산선 안산으로 유치, 수인선 안산시 사업 구간 반지하화,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사 건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

【 신안산선 】

-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철도계획 Network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안산시가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노선과는 별도로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취지와는 다르게 노선결정의 우려가 있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신안산선 노선을 당초의 계획기능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안산시 유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 2009.11.02. 국토해양부에서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 발표를 통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의 최적 노선을 여의도~안산 중앙 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씨티 노선으로 잠정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국토해양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의 최적노선 중 여의도 ~ 안산 중앙 노선의 성포-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와 안산테크노파크까지의 노선 연장을 강력히 건의함.

【 수 인 선 】

- 안산시 구간의 경우 반지하화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지상부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
- 수인선은 당초 지상 설계보다 지하 2.64m 아래로 철로를 설치하고, 평탄화 가능한 부분 680m에 대하여는 박스설치 및 복토하여 지상부를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노출된 부분은 소음,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함.
- 2009년 12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을 통하여 안산시구간의 680m 구간에 대하여 반지하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방안 설계용역 추진 시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

【 소사 ~ 원시선 】

- 석수골역사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시의 행정적 전문적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시 선부역 부속사업 및 석수골역 부대사업의 추진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경주를 집행부에 당부함.

7.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9. 11 . .

제 출 자 :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장

1. 주 문

- 지난 11월 2일 국토해양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 발표를 통해 신안산선의 최적 제안 노선을 제시하였으나
-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신속한 여객수송과 함께 안산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포 ~ 목감 구간의 추가 정거장을 설치하여 줄 것과 여의도 ~ 중앙 노선을 안산의 지역기술혁신 및 지식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국토해양부는 신안산선 노선선정과 관련, 시흥시 및 안산시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신안산선 노선갈등 해소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11월 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의 제안 노선 중 성포 ~ 목감 구간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법정동 :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및 부곡동, 월피동에 이르는 장대구간임에도 정거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신안산선이 철도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안산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포 ~ 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 또한, 경기 서남부지역의 종합 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역할 및 초기 창업 지원과 전략산업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그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 경기테크노파크 주변에는 한양대, 한국전기연구원, 로봇종합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갈대습지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시화호를 주변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 우리 안산시의회는 안산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신안산선의 성포 ~ 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여의도 ~ 중앙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新安山선이 신속한 여객수송과 함께 안산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포 ~ 목감 구간의 추가 정거장을 설치하여 줄 것과 여의도 ~ 중앙 노선을 안산의 지역기술혁신 및 지식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1. 국토해양부는新安山선 노선선정과 관련, 시흥시 및 안산시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新安山선 노선 갈등 해소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11월 2일新安山선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 2.新安山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의 제안 노선 중 성포 ~ 목감 구간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법정동 :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및 부곡동, 월피동에 이르는 장대구간임에도 정거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新安山선이 철도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안산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포 ~ 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를 건의하는 바이다.
3. 또한, 경기 서남부지역의 종합 클러스터 허브로서의 역할 및 초기 창업 지원과 전략산업별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그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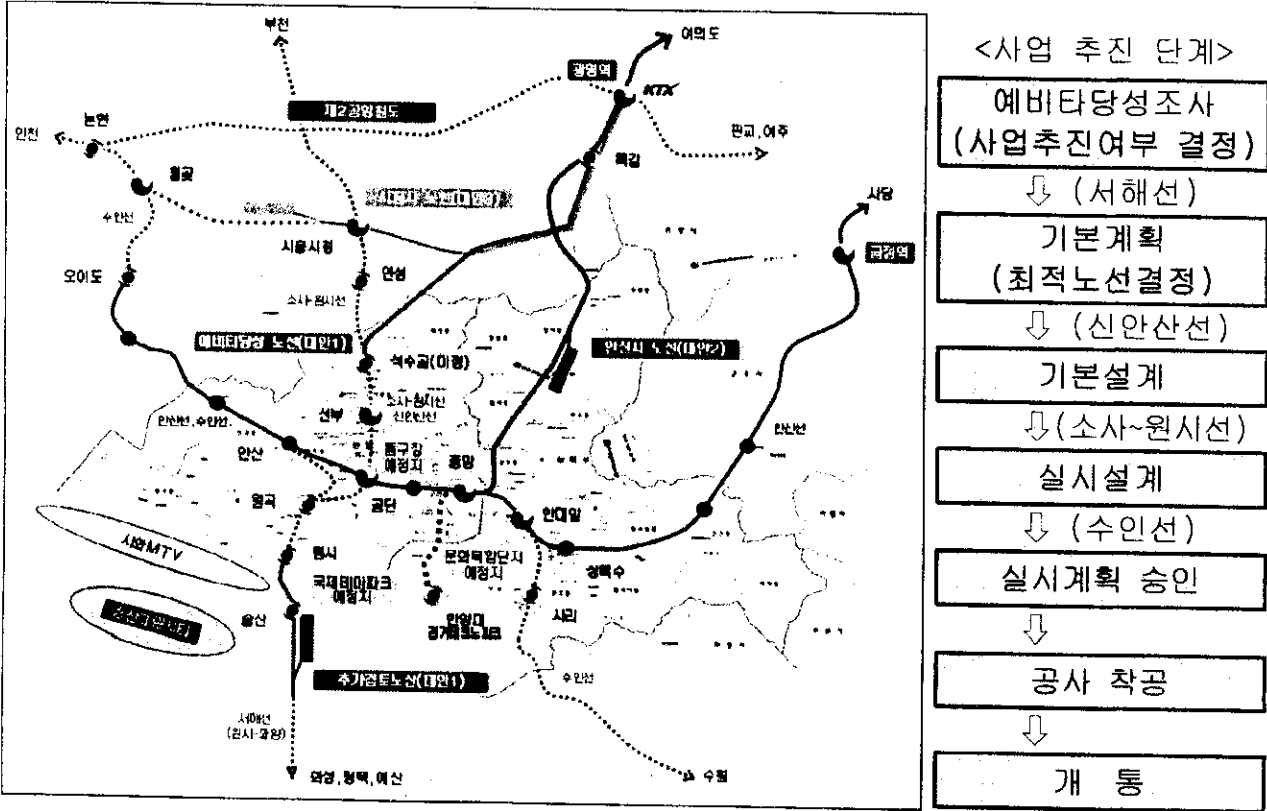
4. 경기테크노파크 주변에는 한양대, 한국전기연구원, 로봇종합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갈대습지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시화호를 주변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5.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5만 안산시민과 함께 안산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안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성포 ~ 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와 여의도 ~ 중앙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8. 안산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안)

【 사업개요 및 노선도 】

구 분	구 간	연 장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신안산선	청량리~여의도~안산	41km	2005~2021	39,220
소사~원시선	부천 소사~안산 원시	23km	2003~2014	13,259
수 인 선	수원~안산~시흥~인천	53km	1995~2015	18,264
서 해 선	안산 원시~충남 화양	90km	2008~2017	28,303

※ 자료 : 『대도시권광역기본계획(2007~2026)』, 2007. 12, 건설교통부



9. 사진으로 본 특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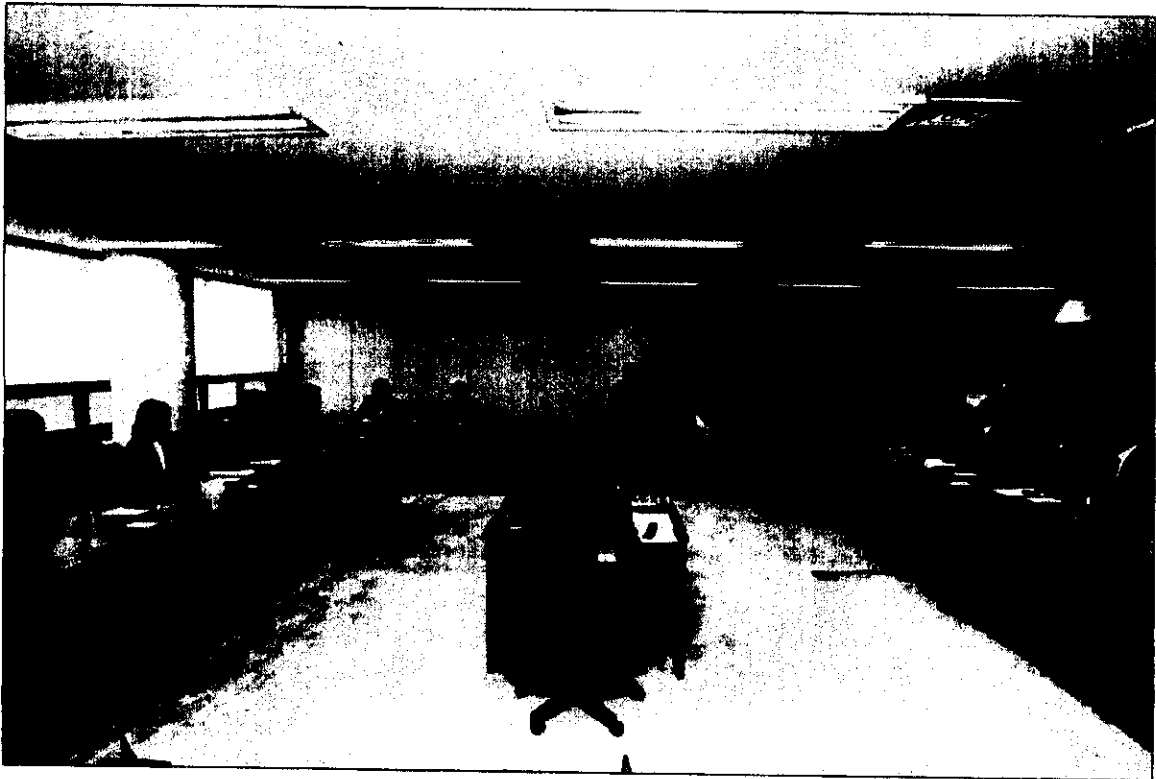
제1차 광역전철특위 회의



제2차 광역전철특위 회의



제3차 광역전철특위 회의



제5차 광역전철특위 회의

10. 광역특위 관련 언론보도 자료

2차 광역전철특위 위원장... 김동규 의원 선출

“산적한 수인선 문제... 해결하겠다”

‘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2차 광역전철특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사진), 간사에는 김판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차 광역전철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수인선과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광역전철 등 안산시에 계획된 광역전철망의 합리적인 건설대책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 관련 “그 동안 수인선 사업 등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으나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둘 수 없다”며 “다음 임시회 전 까지 수인선 반지하 개선책, 합의서 초안을 확정하는 등 결실을 만들어 내는 특위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2차 광역전철특위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 김영연, 강기태, 문인수, 박선희, 성준모, 이민근, 정승현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 반월신문, 2009년 04월 10일 (금)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전철역 추가설치 요구

안산시, “전철역 추가의견 공감, 정부에 건의문 전달할 것”

안산시의회 광역전철특위는 15일 신안산선 노선 잠정안과 관련 목감~성포역 사이 구간에 역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기로 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안산선 잠정 노선안에 대한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특위는 “그동안 지역간 갈등을 빚어오며 추진이 지연됐던 신안산선이 시흥과 안산 2개 노선으로 잠정 결정된 것은 다행이며 노선중 목감에서 성포역 중간 월피동에 추가역 설치를 내달 확정고시전에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약 10km에 달하는 이 구간에 역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그간 교통취약지로 소외를 받아 오고 있던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등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실마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담당부서 또한 특위의 전철역 추가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 구간 추가역사 설치의 당위성과 주민여론을 담은 건의문을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신안산선 노선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부처와 사업비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확정·고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후 2013 착공, 2017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간경기, 2009년 11월 15일(일)

여의도 안산-시흥 잇는 신안산선 2개 노선 확정, 2017년 개통 예정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여의도~광명~안산시 중앙동, 여의도~광명~시흥시청~송산그린시티를 잇는 신안산선 2개 노선을 2일 최종 확정했다.

최종 결정된 노선은 서울 여의도역에서 경기도 광명역을 지나 시흥과 안산으로 '스'자 모양으로 갈라진다.

10월 연구용역에서 최적노선 대안으로 제시한 시흥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11월 2일 시흥시·안산시 등 지자체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잠정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용역 기준 복선전철 노선연장 40.4km(안산~여의도~청량리)에 대한 사업비는 5조 1,219억원이며 최적 대안 노선안 계획은 여의도~중앙역(송산역)을 잇는 36.71km로 사업비는 3조 4,800억원이다(광명~시흥시청 8.96km포함).

교통수요가 당초 22만 9,847명/일(2021년)에서 33만 2,248명/일(2019년)으로 대폭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기존에 제안됐던 노선보다 가장 우위(B/C= 1.32)에 있다.

신안산선과 향후 건설예정인 월곶~광명간 철도노선이 광명~시흥시청 구간을 공동 이용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월곶~광명간 철도 추가 개설시 4,041억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 차량기지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송산 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총 79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최적노선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와 함께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 후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과 총사업비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시행해 조속히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201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사업=청량리~여의도~안산간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자형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중앙일보, 2009년 11월 03일(화)

광역전철특위 신안산선 추가역 설치 요구

안산시의회 광역전철특위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안산선 노선 잠정안과 관련해 목감~성포역 사이 구간에 추가로 역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13일 시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신안산선 잠정 노선안에 대해 시흥 목감역부터 안산 성포역 사이 구간에는 역이 들어서지 않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기본계획의 확정고시상에 추가역 설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약 10km에 달하는 이 구간에 역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그간 교통취약지로 소외를 받아 오고 있던 안산동, 부곡동, 월피동 등 이 일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향후 이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수요에 대처하기도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담당부서 또한 특위의 전철역 추가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며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 구간 추가역사 설치의 당위성과 주민여론을 담은 건의문을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신안산선 노선 잠정안 발표시 향후 중앙 관련부처와의 사업비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조속히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 착공해 2017년 제1단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부일보, 2009년 11월 16일(월)